

6강 죽음을 통해 삶을 찾은 사람들 (첫 번째 시간)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테레사 수녀가 가르쳐준 이야기

김명원 씨(46세)는 약대를 졸업해 제약회사를 다니기도 했던 약사지만 지금은 시인으로,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하고 있다. 그녀의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된 건 바로 대장암을 극복하는 치열한 투병과정을 통해 스스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1995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아찔했어요. 젊은 나이에 제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을 포함해 가족들이 없었다면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결국 수술을 받고 13달 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다. 대장도 잘라내고, 항암제도 쓰고 있어 설사 같은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 어지럼증, 두통 등도 심했으며,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생겼다. 신경정신과에서 상담 및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그는 이겨냈다. 항암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거치는 동안 김씨는 동네 주부 백일장에 나갔다. 질병으로 삶이 깊어진 만큼 그 감정을 담아 시를 썼다. 여기저기 백일장 대회에도 참석했다. 1년 뒤에는 시인으로 등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원 공부도 시작해 국문학을 전공했다. 이제는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암과 같은 위중한 질병도 무조건 박멸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몸이나 내 삶의 일부처럼 생각해야 해요. 질병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돌아봐야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 죽어가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로 보살피는 호스피스 봉사자, 암 등으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다가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사람, 죽음의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죽음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죽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크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지난 1998년 3월 9일, SBS 시사교양프로 <추적, 사건과 사람들>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형수의 48시간’ 편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의 교도소 안 생활을 고스란히 공개했다. 이 프로에 등장한 사형수들은 막가파 사건의 최정수를 비롯해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의 윤용제, 아버지를 살해한 김진태, 변심

한 애인을 살해한 김인제, 애인을 위해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종화 등이었다. 윤용제, 김종화는 프로 그래미 방영되기 몇 달 전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미 확정된 죽음 앞에서 잉여의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범 시절과는 크게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뒤늦게 세상의 따뜻한 면을 발견하고 장기기증을 약속할 만큼 세상의 훈훈함에 스스로 온기를 더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 사형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화면을 통해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되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한때의 실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구속 당시에는 표독스럽던 흉악범이더라도 100명 가운데 99명이 종교에 귀의해 짧은 기간이나마 반성하면서 착하게 살다 가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선량한 모습으로 되돌아온 사형수들은 깊은 참회와 함께 불우이웃을 위해 영치금을 맡기는가 하면, 자신의 장기는 물론 몸뚱이를 통째로 기증하고서 마지막 길을 떠나는 감동을 솔하게 보여준다.

이런 보도를 접하다 보면, 극악무도한 흉악범의 사형 집행과 생명의 존엄성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도 심각하게 고민할 시기가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

사형수 4명이 흘린 생명의 눈물

2002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비록 차가운 감방 안이지만 사형수 김진태 씨(37세)의 어머니 장태순 씨(56세)는 아들이 계속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언제 아들과 이별할지 몰라 매일같이 가슴을 태우면서 10년을 살았다고 한다. 김진태 씨는 63명의 미집행 사형수 가운데 최장기 수로, 10년째 사형집행을 기다리면서 복역 중이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특별사면에서 다른 3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을 받았고,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는 지난 1993년, 자신과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를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버린 존속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구치소 안에서 기독교에 귀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옥중전도사'로 변신한 그는 사형수 관리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방을 옮길 때마다 수감자들에게 전도를 해 6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구치소 관계자는 전했다. 사형수에게 면죄되는 화장실 청소 등 굵은 일을 자청했고, 자신의 사형이 집행된 후에는 안구와 신장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기도 했다.

또 1994년 친구와 함께 변심한 여자 친구를 납치살해한 뒤 여자 친구의 부모에게 몸값 1억 원을 요구했던 김인제 씨(35세)도, 1995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뒤 불교에 귀의해 독실하게 신앙

생활을 하던 중 7년 만에 사형수의 명에를 벗게 되었다. 3대 독자였던 김인제 씨가 살인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9년 전 일 때문이었다. 김씨는 9년 전 대기업에 입사해 재벌의 딸과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김씨를 살인에까지 이르게 하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 약혼식 날 심하게 무시를 당한 김인제 씨는 끝내 약혼녀를 살인하기에 이르렀고 사형선고를 받았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는 불안감에 매일매일 시달리던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다가선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접하면서부터. 그는 불교에 귀의하면서 비로소 참회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법도 배웠다. ‘기도를 하다가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는 바람에서 2002년 9월 1000일 기도에 입재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 사형이 집행되리라는 소문이 파다하던 차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그는 짧았던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1000일 기도 중 200일 회향을 마친 며칠 뒤인 12월 28일, 그의 감형소식이 날아들었다. 지금도 그는 매일 108배 기도정진을 하면서 참회의 시를 쓰고 있다.

이들과 함께 감형된 김장근 씨(35세)는 1996년 유흉비 마련을 위해 동료와 함께 친구를 납치, 현금 850만원을 뺏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998년 4월 사형이 확정되었다. 김진태 씨와 마찬가지로 안구와 시신 기증을 약속한 그는 감옥의 동료들과 교도관들로부터 ‘모범수 가운데 모범수’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에 침입, 경비원을 살해한 혐의로 1995년 5월 사형수가 되었던 김동운 씨(29세)도 새 생명을 얻었다. 특별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4명은 한결같이 눈물을 흘리며 뿔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교화위원이란 직함을 달고 사형수들의 어머니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혜원 할머니(70세)의 사형수에 대한 그동안의 느낌과 생각을 통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선하게 변할 수 있으며, 목숨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흉악범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크게 뉘우쳐 새롭게 태어난 사형수들을 만나면서 교도소는 그들에게뿐 아니라 세계도 인생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죽고 싶다’ 는 말을 하며, 특별한 동기도 없이 자살을 하는 것 같아요. 절망의 삶에서 회개하고 희망을 안은 채 숨진 사형수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가 봅니다.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지 않았던들 그들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참회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글이 소중한 이유는 그들로부터 이러한 통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가르쳐준 이야기

인도에서 활동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세운 수도회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로마 교황청의 인가가 1950년 10월 7일 떨어졌다. 가톨릭교회의 일반 수도회가 지키는 3가지 서원, 청빈과 정결 그리고 순명 이외에 사랑의 선교회는 또 하나의 서원을 추가했다. 네 번째 서원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한다’는 결의이다. 의식주 같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이 헌신은 아니다.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사랑에 굶주린 사람, 삶에 절망해 희망의 빛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큼 절실한 것은 없다.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은 네 번째 서원을 ‘우리들의 길’이라고 불렀다. 테레사 수녀가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1952년 문을 연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집(니르말 흐리다이)’은 사랑의 선교회가 벌인 최초의 봉사활동이었다. 그 첫 사업은 거리에서 죽은 한 남자의 슬픈 사연으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마더 테레사 수녀가 머물던 곳에서 가까운 캠프벨 병원 근처의 길가에서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수녀들이 병원에 부탁해 보살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이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찌할 수 없게 된 수녀들은 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해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죽어 있었다. 개나 고양이도 이처럼 비참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수녀들은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보다도 애완동물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또한 테레사 수녀는 길가에서 쥐와 개미에게 몸이 반쯤 먹혀버린 여인을 본 적도 있었다. 가까운 병원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지만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테레사 수녀는 받아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텨 가까스로 병원에 입원시켰던 적도 있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주기 위해, 마더 테레사는 모티즈힐에 방을 빌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시궁창에 빠진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끌어올렸다. 얼굴만 빼고는 온 몸에 상처투성이였다. 그를 보살피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게 돼서 천사처럼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몸을 씻어주고 상처를 소독하여 침대에 눕혔더니 바로 3시간 뒤에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죽었다. 테레사 수녀는 경찰당국자를 찾아가 이런 비참한 실정을 호소했고, 이를 계기로 해서 니르말 흐리다이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니르말 흐리다이는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집을 의미한다.

1. 누구든지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죽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이 니르말 흐리다이를 처음 찾아올 때는 너무나 지쳐서 입조차 열 기운도 없는 상태이다. 수녀들은 사람들이 이곳에 실려오면 이름을 몰라 익명으로 기록한다고 한다. 그러다가 음식을 좀 먹고 가까스로 기운을 차리고,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되면 겨우 자기 이름을 말한다. 수녀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이름, 나이, 종교를 적어 침대에 붙여놓았다. 종교를 적어놓은 것은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죽으면 개인의

종교에 맞게 장례를 치러주기 위함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취했다. 누구든 개종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종교를 입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단지 행동으로 실천하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니르말 흐리다이에서는 매일 아침 기도시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었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 경전을 읽었다. 함께 기도할 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니르말 흐리다이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거리에 살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사랑과 배려였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만 했다. 니르말 흐리다이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마더 테레사는 니르말 흐리다이를 통해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몇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들이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2.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고 떠난다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살피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가 어느 날 밤, 거리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녀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다. 구더기가 그녀의 몸을 파먹고 있었던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그녀를 정성껏 보살펴주었다. 여인을 침대에 눕히자 여인은 수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름다운 미소가 흘렀다. 일찍이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를 본 적이 없었노라고 테레사 수녀는 말했다. 그녀는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죽은 그녀를 쳐다보면서 테레사 수녀는 생각에 잠겼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만일 그녀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게 나의 솔직한 답이었다. 혹은 “나는 추워요”, “배가 고파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남은 이해하는 마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고 떠나갔다.

우리는 말기암 환자라든가 에이즈 환자 등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어갈 때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죽어가는 사람을 올바르게 돕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과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비록 외국에서의 일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테레사 수녀가 보여준 호스피스 활동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는 훌륭한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레이먼드 무디와 같은 개척자들에 의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어가는 사람을 주의깊게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좀 더 밝은 태도로 임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이 한결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영적인 변화까지도 체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티베트의 소갈 린포체도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한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될 때 자기만의 결심을 하게 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심이 그것이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법을 진정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무한한 자비심의 근원을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소갈 린포체는 말한다.